

## 청소년소설에 재현된 ‘엄마’의 의미와 역할\*

정미진\*\*

### -차 례-

1. 서론: 가족의 해체와 엄마라는 존재
2. 폭력과 무책임의 표상으로서의 엄마
3. 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와 상상적 대안
4. 결론을 대신하여: 사라진 엄마의 귀환

---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48456)

\*\*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legonoli@naver.com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청소년소설에서 ‘엄마’가 재현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소설에서 엄마의 의미와 역할을 현실과의 관련 아래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소설에서 엄마는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고 자식의 주체성의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식과 지배-복종의 권력 관계를 강화하거나(『스프링 벅』, 『하이킹 걸즈』), 자식에게 직접적인 학대를 가하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위저드 베이커리』, 『홀홀』) 한편 가족 이데올로기에 예속되지 않는 주체적인 엄마를 등장시키거나(『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국가적 돌봄, 부모 면접이라는 입양 방식 등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새롭게 상상하는 경우(『페인트』)도 있다. 이들 소설에서 엄마는 해체된 가족 내에서 돌봄 의무나 사회적 기대, 편견을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동안 청소년소설에서 엄마는 부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여 청소년인물의 성장을 추동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소설에서 자식과 권력 관계를 형성하여 균립하려고 하는 억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식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 의미와 역할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주제어: 청소년소설, 엄마, 권력 관계, 폭력, 가족 이데올로기, 성장

## 1. 서론: 가족의 해체와 엄마라는 존재

모성이 ‘본래적’이라는 착각은 꽤나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성은 시대와 사회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호명되었다. 이는 한국 근대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모성이 호출되는 양상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해방기 모성은 새로운 민족과 국민화를 위한 특정의 여성으로 호명<sup>1)</sup>되며, 4·19혁명 이후에는 혁명가를 낳는 위대한 어머니로 어머니의 ‘몸’은 사회의 변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sup>2)</sup> 또한 1970년대의 분단소설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까지 대신 떠맡는 ‘두 얼굴의 어머니’로, 1990년대 중반에는 페미니즘적 시선을 가진 여성 작가들에 의해 남편에게 매맞고 버림받는 어머니와 그를 지켜보면서 자란 ‘어머니-되기’에 대해 거부하는 여성인물이 등장했다. 한편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창비, 2008)와 같은 소설에서는 자신의 행복과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철저한 희생으로 감내하는 어머니상, 존재할 때는 참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사라진 이후 실재적 의미를 인정받는 유령과 같은 어머니<sup>3)</sup>로 재현된다.

그러나 호명되는 모성이 어떤 형태라 하더라도 그 근저에 놓인 것은 남성중심이데올로기이다. 어머니다움을 명명하는 모성은 남성중심이데올로기에 여성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제한하기 위해 제작되었고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억압 기제로 작동되었다. 남성은 자신이 축적한 부를 자신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자식에서 세습하고자 했으며 여성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케이트 밀레트가 『성정치학』(이후, 2010)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가부장제는 모든 권력 관계의 심부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은 너무도 견고해서 쉽사리 무너지거나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불과 몇 년 전 『82년생 김지영』(조남주,

1) 박필현, 「국가주의적 젠더정치, 모성의 호명과 주체화의 욕망」, 『구보학보』 15, 구보학회, 2016.

2) 한순미, 「한국 현대문학에서의 ‘어머니’ 표상과 ‘희생’ 서사」, 『석당논총』 50, 석당학술원, 2011, 471-472면.

3) 류보선, 「‘엄마(를 부탁해)’에 이르는 길」, 『돈암어문학』 30, 돈암어문학회, 2016.

민음사, 2016)에 여성들이 보냈던 관심과 환호는 많은 것이 변화했다고 믿는 현재에도 여전히 많은 것이 변화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음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된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넘어 사회는 여성에게 ‘슈퍼맘’되기를 중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한 억압과 폭력의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청소년 주인공을 내세우고, 청소년을 주 독자층으로 상정하는 청소년소설<sup>4)</sup>에서 부각되는 사회적 관계와 그에 따른 갈등의 핵심에 놓인 것 중의 하나는 ‘엄마’일 것이다. 청소년소설의 주인공이 처한 사회적 상황 중 중요한 결핍으로 작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족의 훼손 내지는 붕괴이고 그것은 한부모 가족이라는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소설 문학이 현실에 대한 재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청소년이 청소년문학에 요구하는 것이 자신들이 삶의 생생한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해 볼 때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한부모 가족은 현 세태에 대한 반영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부모 가정이 아니더라도 재혼가정 등 새로운 가정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sup>5)</sup> 상황이 이러하다면 청소년소설에서 부모의 의미, 특히 홀로 남겨진 엄마가 재현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이 시대가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혹은 이 시대가 여성인 ‘엄마’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를 살핀다는 측면에서도 유의미할 것이다.

청소년소설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훼손이라는 사회적 상

---

4) ‘청소년소설’이라는 개념은 아직 확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문학 내지는 청소년소설을 ‘청소년을 주독자로 상정하고 청소년을 중심인물로 내세우는 문학’으로 정의한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문학이 청소년을 독자로 상정하여 창작되고 있으며, 문학이 현실과 맺는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의 현실을 다루는 것이어야 청소년문학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정미진·이영석,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사회적 관계의 양상」, 『인문학연구』37, 인문학연구소, 2018, 262면)

5) 「한부모 가구 비율」(e-나라지표, 2022.9.8.)에 따르면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서 10%에 이르던 한부모가구 비율은 2015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한부모 가족수가 감소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2015년 이전에는 일반가구 중 주말부부 등이 포함된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까지는 통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황에 놓인 청소년 주인공이 내적 갈등을 겪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모성의 역할과 의미<sup>6)</sup>를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김은하는 「청소년 문학과 21세기 소녀의 귀환」<sup>7)</sup>에서 청소년 문학에서 부권이 약화된 자리에 그동안 서브플롯으로만 등장하던 어머니-딸의 서사가 중심 서사로 자리하며, 이때 청소년 주인공 특히 소녀의 성장을 인도하는 것이 모성이라고 설명하면서 모성의 의미를 소녀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살폈다. 또한 선주원은 청소년소설들이 가족 해체 현상을 형상화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청소년소설에서 어머니의 존재를 청소년인물에게 주된 영향을 주어 청소년인물의 삶을 지탱해주는 경우, 이혼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청소년인물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써 청소년인물에게 트라우마를 남기기는 경우, 역할이 미미하거나 부정 당하는 경우로 구분지어 설명한다.<sup>8)</sup>

이 글에서는 청소년소설에서 ‘엄마’가 재현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소설에서 엄마의 의미와 역할을 현실과의 관련 아래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청소년소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청소년소설에는 어떤 형태로든 엄마가 등장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이 놓인 사회적 상황이 그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인 부모와 교사, 또래에 한정적이기 때문이며, 가족이라는 영역 내에서 부모로부터 정신적·육체적·물질적으로도 독립하지 않았지만 사회라는 공적 영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과정에 놓인 청소년에게 엄마의 위치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족 서사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소설을 한정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여러 형태의 서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재현되고 있는 엄마의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이 되는 소설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정상가족 형태는 드물게 나타난다. 중심인물이 포함된 가족은 대개 한부모 가족으로 설정되고 있으며<sup>9)</sup> 이때 아이와 함

6) 박경희, 「한국 청소년소설 연구」, 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6.

김혜정, 「청소년문학에 나타난 가족해체서사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0,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

7) 김은하, 「청소년 문학과 21세기 소녀의 귀환」,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8) 선주원, 「가족의 해체 과정에서 가족의 의미 발견을 통한 성장과 정체성 형성」, 『청소년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이정, 2019, 269면.

께 남는 부모는 ‘엄마’쪽이다. 따라서 청소년소설에서 ‘엄마’의 역할을 들여다보는 것이 엄마를 전면에 내세운 소설들보다 어찌면 더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엄마의 사회적 위치나 의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 2. 폭력과 무책임의 표상으로서의 엄마

부모가 자신이 낳은 자녀에 대해 양육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자연권인 동시에 기본권이다.<sup>10)</sup>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구성하여 자녀를 생산한 성인 부모는 자녀 양육의 책임자이자 보호자로서 미성숙한 자녀가 사회에 진입하여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따라서 부모의 권위는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의 다른 이름으로 여겨졌으며, 이에 부모가 구성한 가족 내에서 부모의 보살핌 아래에 있고 심지어는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다.

유구한 세월 동안 유지되고 있는 가부장제 사회의 가족 공동체 내부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주로 아버지였음이 분명하지만 가정 내 돌봄 주체의 역할을 일임했던 엄마들은 아버지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청소년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청소년소설에 등장해 왔다.

『스프링 벅』<sup>11)</sup>은 “연극부원치고 엄마에게서 자유로운 아이가 몇이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시험과 성적에 십 대의 인생을 저당 잡힌 신세 아닌가?”(10면)라며 소설이 가진 문제의식을 직접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연극’으로 상징되는 청소년이 원하는 자유로운 삶과 그것을

9) 서은경은 「현대문학과 가족 이데올로기 (1)– 아버지 부재의 성장소설을 중심으로」(『돈암어문학』 19, 돈암어문학회, 2006.)에서 한국의 성장 소설은 지향점이 없는 상황에서의 성장이 주를 이루며 이것은 아버지의 모티프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청소년소설이 형상화하고 있는 2000년대의 가족도 이와 유사하다.

10) 김희경, 『이상한 정상 가족』, 동아시야, 2017, 101면.

11) 배유안, 『스프링 벅』, 창비, 2008.

통제하고 억압하는 엄마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느닷없이 연극부의 연습실에 쳐들어와 “우리 창제, 연극부에서 빼줘.”라고 말하는 창제 엄마는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엄마의 전형을 보여준다. 공부해야 할 아들이 한심한 연극이나 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아들의 활동을 제어하려는 것이다. 연극부 연습실에 엄마가 찾아온 다음 날 창제가 집을 나가자 창제 엄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아까 휴게실에서 창제 어머니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나에게서 한 가닥 희망이라도 건지고 싶어 했다. 서슬이 퍼레가지고 연극부 교실에 나타났던, 며칠 전의 그 어머니가 아니었다.”(16면)

나는 창제 어머니를 떠올리며 우리 엄마를 생각했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엄마에게 형은 잘 길들여진 순한 양이고 흡족한 아들이다. 그에 비하면 나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아들이고, 학교에서야 범생이까지는 못 돼도 그만그만한 학생쯤은 된다. 그러나 엄마 기준에 대면, 나는 탄탄하고 확실한 큰길을 두고 자갈길, 구부러진 길을 빙빙 돌아가는, 말하자면 귀하다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어리석은 아들이다.

“꼭 돌아봐야 그게 후회거리란 걸 알겠니?”<sup>12)</sup>

창제 엄마의 태도 변화와 동준 엄마의 태도 변화는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소설의 중심인물인 동준 엄마의 변화에는 명문대에 진학해 온 집안의 자랑이었던 동준의 형 성준의 죽음이 계기로 작용한다. “모범 엄마의 정성스러운 ‘한밤의 과일 접시’”는 동준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억압과 통제의 상징이 되었고, 동준은 엄마의 성향을 간파하고 본인의 모든 생활을 부모와 공유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 자식을 ‘자존심’이라 여기는 부모의 태도는 자식의 개별적 삶을 인정하지 않는, 자식을 부모에게 예속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부모의 바람대로 부모가 제시한 길을 순종적으로 걸어 원하는 성과를 얻은 자식은 자존심을 높이는 것이고,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거나 부모가 원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 자식은 자존심을 깎는 것이 된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

12) 위의 책, 17면.

키기 위해 대리시험이라는 입시 비리를 저지른 동준 엄마의 선택은 결국 자식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스스로 생을 포기하게 만든다. 소설에서 성준에게 엄마의 자존심을 덧입은 기대는 결국 폭력으로 작동하게 된 것이다.

한편 『하이킹 걸즈』<sup>13)</sup>에서 은성의 엄마는 성년이 되기 전에 은성을 낳았고, 미혼모로 자신의 엄마의 도움에 의지해 자식을 키운다. 그러나 철부지 막내딸로 자라 엄마가 된 이후에도 엄마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탓에 온전히 엄마가 되지 못한 책임감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란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편식을 하는 것을 넘어 은성이 여섯 살 무렵에는 유기를 시도하기까지 한다. 은성의 회상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은성의 엄마는 은성과 둘이 간 놀이공원에서 딸을 혼자 내버려두고 놀이공원이 폐장할 때까지 찾으러 오지 않는다. 이때 은성을 찾으러 경찰서에 온 것도 은성의 할머니였다.

이제 곧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 년이다.

그날도 엄마는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할머니와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

“다 지긋지긋해. 엄마도 은성이고 다 지긋지긋하다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이 집에서 난 뭐야? 엄마가 은성이 엄마 노릇 다 하잖아. 왜 난 은성이한테 대접도 못 받으면서 은성이 엄마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해? 이 은성, 왜 네가 내 인생을 망쳐? 네까짓 게 뭔데?”<sup>14)</sup>

그 자신이 엄마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탓에 제대로 자식을 돌보지 않았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는다. 모든 책임을 자신과 자신의 자식까지 돌보는 엄마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신적인 미성숙을 방증한다. 은성은 엄마의 무책임함과 정신적 미성숙에 더해 아빠가 없다는 것, 엄마가 미혼모라는 사실만을 두고 “문제가 많은 가정”이라고 하거나 “불행하다고 마음대로 생각해 버”(215면)리는 현실에 대한 저항과 방어의 수단으로 폭력을 학습하게

13) 김혜정, 『하이킹 걸즈』, 비룡소, 2008.

14) 위의 책, 133면.

된다.

결국 은성은 폭력 사건에 휘말려 교도소 대신 사회프로그램으로 실크로드 하이킹을 떠나는데, 하이킹을 함께 하는 보라의 상황도 은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통이 부재한 가족(“엄마는 매일 공부만 하라고 하고, 아빠는 바쁘기만 하고, 오빠는 잘난 척만 하고……. 우리 가족은 서로 하나도 안 친해.”(213면)) 내에서 엄마는 보라를 억압하고 통제한다. 가족 내부에서 훼손된 보라의 자존감은 학교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으로 나타나고 더 나아가 해소되지 못한 스트레스가 절도의 습관화로 표출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스프링 벽』과 『하이킹 걸즈』에 등장하는 엄마는 자식과 권력 관계를 노골화한다. 자식을 소유물로 여겨 하나의 인격으로 자식이 가진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는 강압적인 유형의 엄마를 내세워 이상적인 부모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위저드 베이커리』<sup>15)</sup>와 『홀홀』<sup>16)</sup>의 경우에는 자식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 등 실질적인 폭력을 가하는 엄마가 등장한다.<sup>17)</sup>

『위저드 베이커리』의 계모 배 선생은 당초부터 엄마의 자리를 “권력을 휘두를 위치”로 인식하고 자식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여 억압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는 형태의 엄마이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꾸린 가정 내에서 혈육이 아닌 자식을 가족의 외부로 밀어내는 것으로 드러난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배 선생의 폭력성이 비단 혈육이 아닌 자식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신이 낳은 딸 무희가 피해자인 성추행 사건이 자신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살려달라는 무희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빙빙 돌리며 철제 옷걸이로 아무 데나 두들겨 패”면서 “말해! 말해! 누구야! 그 새끼가 아니면 누구! 너 이년, 엄마 병신 만들고 생사람 잡고 이제 개망신당한 걸 어떡할 거야! 죽어 이년아!”(46면)라고 악다구니를 쓴다. 무자비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이 자신

15) 구병모, 『위저드 베이커리』, 창비, 2009.

16) 문경민, 『홀홀』, 문학동네, 2022.

17) 아동학대는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유기 등으로 구분되며, 둘 이상의 유형이 중복으로 행해질 경우 중복학대에 해당된다.(이경숙 외, 「피학대 아동의 가족에 대한 정신적 표상: 성, 연령 및 학대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08)

의 혈육에게도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저드 베이커리』의 엄마 배 선생은 전래동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한 계모의 클리셰라기보다는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무책임하고 미성숙한 엄마의 표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실의 사건과 맞물려 소설 속 상황을 더욱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2020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8개월 여자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아이를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되었을 때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잔혹한 폭행은 전 국민적 공분을 샀고, 양부모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사회 제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게 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실제로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로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부모에 의해 행해지는 학대가 2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8)</sup> 국내외 입양의 경우에도 그 수치는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입양아동에 대한 사망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sup>19)</sup> 아동학대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홀홀』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입양과 아동학대 문제를 동시에 보여준다.

『홀홀』에서 교통사고로 어린 딸과 남편을 동시에 잃은 서정희는 상대편 사고 트럭에 타고 있다가 부모를 잃게 된 어린 유리를 입양한다. 그러나 서정희의 입양은 다소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상대 차량의 아이가 죽은 자신의 딸과 같은 나이라는 이유로 죽은 딸과 유리를 동일시하여 “수빈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어요. 수빈이랑 유리는 나이가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제 딸로 행복하게 잘 살게 하고 싶어요. 수빈이는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는 아닌 것도 같아요. 유리가 있으니까요. 유리를 지켜주고 싶어요.”(232면)라는 마음으로 진지한 고민 없이 입양을 결정한

18) 이영우, 장수연,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20,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 111면.

19) 소라미, 「한국에서의 입양제도의 현황과 과제」, 『가족법연구』 63, 2018, 5면.

것이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그리움과 정서적 불안이 한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자신의 인생에 예측시키는 선택을 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유리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맡기고 떠나버린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엄마 서정희의 무책임이 가시적인 폭력의 형태로 진화한다는 점이다. 충동적으로 실행한 입양에 대한 방임은 이내 자신의 진짜 혈육인 아들 연우에게로 향한다. “목 언저리에 검붉게 변색된 피부”, “두피의 짓무른 상처”, “배와 가슴에 검붉고 노란 멍 자국”, “연두색과 보랏빛 멍 자국”, “푸르스름하게 변해가는 멍 자국”(78~79면)은 연우에게 가해진 신체적 학대가 꽤 오래 지속되었음을 증명한다. 재혼하여 꾸린 가정이 다시 파탄에 이르자 술에 의지해 아들 연우를 방치하고,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일삼은 것이다. 종내는 아들 연우에게 “나도 살고 싶지 않아. 날 죽여. 여기에서 밀어 버려. 밀어 버려.”(201면) 라며 어린 아들에게 가혹한 정서적 폭력을 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들이 엄마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도 전에 ‘엄마를 죽인 아들’이라는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될 위험으로 내몬다. 서정희의 무책임은 처음에는 방임의 형태로, 이후에는 더욱 직접적인 학대인 신체적·정서적 폭력의 형태로 강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소설에 재현되는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엄마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지나치게 자식을 통제하거나 억압하고,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가한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관계<sup>20)</sup>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가족 지지와 가정 화목이 높을 경우 청소년의 행복이 높아지고, 심리적 통제가 강화될 경우 행복감이 낮아진다는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소설에서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엄마가 갈등과 장애의 요소라는 서사적 장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지점은 『스프링 벅』을 제외한 나머지

20) 이해순·변상해, 「청소년이 지각하는 주관적 행복감이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13권 5호, 2975-2976면.

소설들에서 엄마들 역시 결핍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편견의 대상인 미혼모로 남편의 도움 없이 홀로 아이를 책임져야 하고(『하이킹 걸즈』), 새로 꾸린 가정에서 남편은 가정의 수호자로서의 아내만을 원한다(『위저드 베이커리』).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남편과 아이가 갑자기 죽어 홀로 남겨졌다(『홀홀』). 이처럼 이들 소설에서 ‘엄마’들이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다. 부모에게 부과되는 양육의 책임을 오롯이 홀로 짊어지게 된 상황의 무게와 압력은 자녀에게 적합한 돌봄을 제공해야 할 엄마의 역할까지 망각하게 했을 것이다.

“어디 전화뿐이나. 잠이 눈에 딱 달라붙었는데, 엄마 밥 줘 그러면 자식이고 뭐고 꽤 죽이고 싶다. 자식이 아니라 웬수야. 니들 한참 어렸을 때, 되게 아픈 적이 있었어. 입이 바짝 마르고 몸이 바들바들 떨려서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는데, 니들이 쫄쫄 굶고 있었잖아. 그 몸으로 싱크대 부어잡고 밥하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

“아빠는 뭐 하고?”

“밖에서 술 처먹고 있었잖아!”<sup>21)</sup>

『우아한 거짓말』의 엄마는 사고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생계를 위해 성실하게 일한다. 위 인용문에서 딸 만지에게 엄마로서의 고단함을 무심하게 털어놓는 엄마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것은 책임이라는 형태로 부과된 돌봄의 의무가 헌신과 희생의 동의어라는 것이다. ‘부모라서’,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아픔을 참고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유독 엄마에게만 강하게 적용되는 사회적 기대이자 요구라고 할 수 있겠다.<sup>22)</sup>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청소년소설이 그 지점을 간과하지 않

21) 김려령, 『우아한 거짓말』, 창비, 2009, 109면.

22) “아이들은 나에게 지극히 정교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양가감정인데, 쓰디 쓴 원망과 톱날 끝으로 신경을 가는듯한 고통과 더없이 행복한 감정과 애정이 넘치는 상태를 널뛰기하듯 오가는 살인적인 감정 변화의 기복을 가지고 있었다. 때때로 나는 이 작고 악의없는 존재들을 바라보며 내 자신이 이기심과 관용을 베풀 줄 모르는 괴물인 것처럼 여겨지곤 한다. 그들의 목소리가 내 신경을 건드려 관대함을 거덜나게 만들고, 그들의 끊임없는 요구가, 단순하고도 인내심을 보이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요구를 못 들어 준다는 데 대한 절망감,

고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3. 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와 상상적 대안

‘가족은 이러저러해야 한다’라는 가족 이데올로기는 사회와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생산되었다.<sup>23)</sup> 사회의 만족스러운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성실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기획에서 가족은 절대적인 위치에 놓인다. 이때 가족은 자체의 작은 사회로 내부에 권력 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요구되는 틀은 사회의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내밀하게 변화한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발표되는 청소년소설에는 사회가 정상가족으로 규정해 놓은 일반적인 가정 형태를 내세우기보다 가족의 해체, 가족의 해체로 인해 새로이 구성되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sup>24)</sup> 특히 일부 소설에서는 권위적인 가족 이데올로기 자체를 거부하는 엄마를 통해, 자녀 돌봄의 주체를 부모로 한정하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데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sup>25)</sup>에서 여여의 엄마 김경주는 미혼모이다.

---

내 운명에 대한 절망감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며, 이걸 내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때때로 나는 가슴 속에 억누른 분노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한다. 죽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서로에게서 헤어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때면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의 사치를 누리면서 사생활의 자유로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불임 여성들에게 부러움을 느낀다.”(한지희, 『모성과 모성 경험에 관하여』, 소명출판, 54~55면.(아드리안 리치의 『여자로 태어난 것에 관하여』, 재인용) 결혼과 출산, 양육이 여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고백이다. 엄마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와 책임 속에서 이기심과 죄책감이라는 양가감정, 희생과 자유라는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번민해야 한다.

23) 권명아,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15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결혼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의 형태로 간주하는 사회 및 문화적 구조와 사고방식을 말한다. 바깥으로는 이를 벗어난 가족 형태를 ‘비정상’이라 간주하며 차별하고, 안으로는 가부장적 위계가 가족을 지배한다. 정상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가족이 억압과 차별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이다.”(김희경, 앞의 책, 10면)

24) 선주원, 앞의 책, 266면.

연애를 통해 자연스럽게 만나 사랑에 빠진 남자가 바람둥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 이별을 결심하는데, 그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경주는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 미혼모가 되는 것을 ‘감당’하는 쪽을 선택한다. 한국에서 미혼모는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된 가족의 신화를 배반한 채 홀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떠맡는 ‘비정상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성적 욕망을 규율하는 사회에서 여성을 재생산의 주체로 규정해온 가부장적 문화와 남성보다는 여성의 성적 정결성을 문제 삼는 이중적인 성규범의 작동으로 사회적 비난과 비하의 대상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26)</sup> 최근에 이르러서는 자녀를 출산한 후 입양보다는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들이 증가하고 있고, 미혼모 스스로가 자신을 자녀 양육의 주체로 인식하는 양상을 보인다.<sup>27)</sup> 생명의 탄생 자체를 “멋진 일”이라고 여겼던 경주 역시 여권 신문의 사진작가로 일하며 홀로 여여를 양육한다.

“나도 살면서 너와 똑같은 의문을 품고 살았어. 나도 온통 물음표였어. 나는 왜 여여를 낳았을까, 여여의 아빠를 사랑한 건 맞을까, 여여에게 미안한 일을 한 건 아닐까? 어떤 날은 모든 게 분명했어. 나는 여여를 원했고 네 아빠를 사랑했고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 그런데 어떤 날은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 나는 여여를 낳고 싶었다기보다 결단력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여여의 아빠를 사랑했다기보다 모든 걸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걸 자신에게 보이고 싶었던 게 아닐까도 싶고, 여여에게 미안해서 죽어 버리고 싶기도 했어.”<sup>28)</sup>

25) 김이윤,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창비, 2012.

26) 김혜영,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차별의 기제와 특징을 중심으로」, 『젠더와문화』 6권 1호, 여성학연구소, 2013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소설에서도 청소년인물인 여여는 친한 친구거나 많이 배운 부모가 아빠의 존재를 물어올 경우 미혼모 가정이 아니라 이혼 가정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이혼 사실보다 더 큰 결함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대목일 것이다.(『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49면)

27) 정지연·이미정, 「미혼모에서 좋은 엄마로 위치하기: 양육미혼모의 낙인 대응에 대한 연구」, 『젠더와문화』 13권 2호, 여성학연구소, 2020, 116면.

28) 김이윤,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앞의 책, 53면.

위의 인용문에서 경주는 미혼모 밑에서 자란 딸이라는 편견으로 받았던 상처들을 쏟아놓는 딸 여여에게 ‘죽을 만큼 미안하기도 했다’고 고백한다.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결정이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에 배치되는 것임을,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사회의 차별과 배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선택은 책임감 있는 선택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엄마가 되어서 미안”하다는 말속에는 죄책감이 더욱 강조된다.<sup>29)</sup> 여기에서 경주가 말하는 ‘엄마 자격’이란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희생과 헌신의 어머니<sup>30)</sup>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소설에서 미혼모로서 경주가 겪었던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경험은 직접 서술되지 않는다.<sup>31)</sup> 다만 암 선고를 받은 후 여여가 만난 의사가 내린 진단—“만성적인 자살 환자”,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은 경주가 짊어져야 했던 녹록지 않은 삶의 무게에 대한 방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페인트』<sup>32)</sup>는 국가적 돌봄과 입양의 문제를 결합하여 제시함으로써 가족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시도한다.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만 갔다. 정부가 출생을 장려하기

29) 정지연·이미정에 따르면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여성들이었지만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통해 자신이 ‘미혼모’임을 실감하였고, 미혼모들이 자신을 무책임한 사람으로 여기는 듯한 상대의 태도를 경험한 바 있다. 이들은 정상가족 규범을 기준으로 자신을 일탈자로 여기게 하였고, 미혼출산을 일탈적 사건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밝힌다.(위의 논문, 128-129면)

30) 완전한 가족에 대한 욕망과 상상은 가족을 위해 절대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머니’를 요구한다. “척박한 사회에서 ‘유일한 위안으로서의 가족’이라는 가족 이데올로기는 역사적 국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권명아, 앞의 책, 33면) 되는데 한국의 사회적 위기는 이러한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해 왔다.

31) 이는 청소년소설에서 ‘엄마’가 중심적인 위치에 놓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대신 주인공인 청소년인물 여여의 경험을 중심으로 미혼모 가정에 대한 사회의 편견의 보여준다.

32) 이희영, 『페인트』, 창비, 2019.

위해 여러 지원책을 펼쳐 보아도 소용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복잡해졌다. 정부는 결국 새로운 길을 찾았다.

“이제 아이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키웁니다.”

단순히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직접 아이를 맡아 키우겠다는 의미였다. 부모가 낳은 아이를 키우기 원치 않을 때 정부에서 그 아이를 데려와 키우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NC 센터가 세워졌고, 우리는 국가의 아이들(nation's children)이라고 불렀다.<sup>33)</sup>

『페인트』에서 시간적 배경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는 상용화되지 않은 과학 기술이 적용된 첨단 기기와 장치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소설의 배경이 특정 불가능한 미래 사회임을 짐작할 수 있다. 출산율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대책의 일환인 NC(nation's children) 센터는 국가 주도형 돌봄 기관이다. “부모가 키우기 원치 않는 아이인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메디컬 센터에서 아이를 낳고 그와 동시에 NC 센터”에 맡겨진다. “갓 태어난 아기들과 미취학 아동을 관리하는 퍼스트 센터, 초등학교 입학 후 열두 살까지 교육하는 세컨드 센터, 그리고 열세 살부터 열아홉 살까지 부모 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 라스트 센터”(14면)로 구분하여, 이른바 “국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가디’라고 명명하는 관리자들을 배치하고 매달 보디 체크를 하고, 체질에 따라 식단 조절과 운동 처방을 내리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한다.

흥미롭게도 『페인트』는 대개 부모가 키울 아이를 선택하는 현재의 입양제도와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 NC 센터의 아이들은 열세 살 때부터 ‘페인트’라고 불리는 부모 면접을 통해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모를 선택한다는 설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으로서 부모에 대한 인식, 부모에게 예속된 존재로 인식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전복시킨다. 부모 찾기 면접인 ‘페인트’에서 원하는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하는 부부는 면접자가 되고, 선택권을 쥔 아이는 면접관이 되어 주도권을 가지는 것처럼 묘사된다.

33) 위의 책, 19-20면.

그러나 그 속에서 몇 차례의 페인트를 거치면서도 스스로 부모 찾기를 거부하고 있는 중심인물 ‘제누 301’(이하 제누)은 부모 면접을 통한 입양에 대해 “팔려 가는 느낌”이라고 말하며, 면접자로 만나는 부모들에게서 “가식”의 느낌만을 갖는다. 제누에게 부모들은 “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각종 혜택과 보장 제도에만 침을 흘리는 사람들”로 인식될 뿐인 것이다.

그런 제누가 진정한 의미의 부모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 것은 생각하게 된 것은 마지막 페인트에서 ‘하나’와 ‘해오름’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이다.

“학년이 바뀌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 너, 정말 엄마를 따라 공연을 보러 다니고, 엄마가 등록한 아카데미에서 스페셜 클래스를 듣고, 엄마와 함께하는 운동이 좋은 거야? 하고. 혼자 책을 읽거나 조용히 공상을 하는 게 더 좋은 건 아니야? 그렇게 말이야.”

언젠가부터 등 뒤에 길게 드리운 어머니라는 그림자에 하나는 숨이 막혔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내뱉는 ‘너를 위해서’라는 그 말이, 그녀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는 내가 외교관이 되기를 바랐어. 자신이 쉽게 가 볼 수 없었던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내가 자유롭게 오가기를 바랐지. 그제서야 나는 엄마가 왜 그렇게 어릴 적부터 이런저런 외국어 공부를 시키지 못해 안달이었는지 깨달았어. 나는 엄마의 꿈을 이룰 대리인이었던 거야.”

어쩌면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이 아닌 부모 꿈의 대리인으로 살아갔는지도 몰랐다. 아니,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수도…….34)

위의 인용문에서 하나는 지나치게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엄마 밑에서 “엄마의 꿈을 이룰 대리인”으로 자랐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크나큰 진통을 겪어야 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자신의 엄마가 자신에게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할까봐 두려워하는 동시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엄마이고자 했다. 제누는 애초에 완벽한 부모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았지만35)

34) 위의 책, 158-159면.

하나를 만나면서 그가 찾던 부모가 “마음과 마음 사이에 일어나는 마찰로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는, “명령이 아닌 질문과 반성을 할 수 있는 부모”(189면)였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페인트』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부모상일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부모-자식은 혈육의 문제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어린 소통과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반성의 마음이 가로놓인 관계여야 하며, 그런 관계 속에서 부모-자식이 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이 부모의 자격일 뿐만 아니라 자식의 요건이기도 하다는 것을 제누의 입을 통해 보여주며 독자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국가가 나선 돌봄과 새로운 방식의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의 구성에 대해 고민하는 듯 보이는 『페인트』는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정상가족에 편입되지 못한 아이들에게 평생 NC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설정 때문에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한다. 소설에서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하며 열두 명을 살해하고 붙잡힌 살인자가 NC 출신이었고, 이로 인해 NC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에 퍼지자 정부는 열아홉이 되기 전에 양부모를 만나 입양되면 NC 출신이라는 기록을 삭제한다는 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만약 열아홉이 될 때까지 새로운 부모를 만나지 못할 경우 ID카드에는 NC 출신이라는 기록이 계속 남게 되는 것이다.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NC 센터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열아홉이 되기 전에 양부모를 만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모습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야 비로소 안전할 수 있다는 가족의 신화를 강화하는 것이다.

대신 가족을 만들어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제누의 선택을 통해 청소년인물의 성장과 진정한 의미의 돌봄에 집중하게 한다. 가족 만들기를 포기하고 부모 면접 거부를 선언하는 제누에게 가디 박은 NC 출신이 사회에 나가서 받을 차별과 그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제누는 “사람들이 NC를 차별하니까 우리가 NC 출신임을 속인다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35) “때로는 부모이기에 나약하고, 부모이기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겠지. 거짓말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하겠지. (...) 우리가 부모에게 길을 안내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깨를 빌려줘야 하는 상황도 생기겠지.”(『페인트』, 위의 책, 92면)

아니”라고 말하며 “NC 출신에 대한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건, 오직 NC 출신들밖에 없”(194면)을 것이라 단언한다. ‘NC’라는 낙인을 달고 사회에 나가는 것이 자신에게 크나큰 어려움이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NC 출신을 위한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 부모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극복한 제누는 개인적인 가족 선택의 문제와는 별개로 NC 출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문제까지를 염두에 두고 자신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선택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명백한 성장의 징후라 할 수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돌봄이 사회적 낙인으로 작동하게 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가족 만들기를 거부한 인물 제누는 애초에 자신을 낳은 부모에 의해 버림받고, 국가에 의해 양육된다. 그러다 다시 부모를 찾아야 했던 상황에서 만났던 예비양부모들이 보여준 태도는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과 호기심이 만들어낸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호의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제누는 국가가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속에서 성장했지만 돌봄에 수반되어야 할 감정 차원의 배려와 반응성<sup>36)</sup>을 온전히 경험할 수는 없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제누가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사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돌봄의 제공, 가족 구성 자체의 당위가 아니라 돌봄의 제공 방식이나 가족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발표된 청소년소설들은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를 서사화하고 있고, 새로운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가족 이데올로기 내부에서 가족으로 인정되는 정상가족의 해체 자체를 서사화하면서 그것이 ‘문제’로 치부되는 상황의 설정이 오히려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는 듯 보이는 것이 역시 사실이다.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에서 ‘페미니스트 여권신문 사진 기자’로서 주체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경주의 태도와는 별개로 미혼모인 경주는 엄마로서의 죄책감을 안고 있고, 결국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는다. 『페인트』

36) 캐슬린 린치, 김순원 역, 『정동적 평등: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한울아카데미, 2016, 95면.

역시 국가 돌봄과 새로운 가족의 구성에 대한 상상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족 이데올로기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사라진 엄마의 귀환

청소년소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청소년인물의 성장이다.<sup>37)</sup> 성장은 주체적으로 타자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영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청소년소설은 성장의 의미 속에 담긴 주체성에 주목하고 있는 듯하다.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타자의 조력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부터 주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청소년소설에서는 엄마의 존재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소설의 주인공인 청소년이고,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어른으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정체성을 발견하고 주체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으로 중요한 시기라는 점 때문에 청소년인물의 성장으로 귀결되는 청소년소설에서 성장의 조력자로서 엄마의 존재가 부각되는 것이 성장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라 하겠다.

위에서 언급된 청소년소설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은 엄마의 부재이다. 억압과 폭력으로 엄마의 존재가 부각되는 경우(『하이킹 걸즈』, 『위저드 베이커리』, 『홀홀』)에도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엄마’의 상과도 다르고 청소년인물의 요구와도 거리가 멀기에 진정한 엄마의 모습이 아님으로 부재한다. 애초에 엄마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대리되는 경우도 있다.(『페인트』)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엄마(『두려움에게 인

---

37) 청소년소설에서의 성장과 관련하여 박상률은 성장 개념이 비단 청소년소설만의 특징이 아니고 소설은 기본적으로 성장의 서사를 바탕으로 둔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성장소설과 청소년소설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으며,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며 나름대로 성격 구축이 잘된 주인공이 성장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보인다고 지적한다.(박상률, 『청소년문학의 자리』, 나라말, 2011, 24면) 그러나 청소년인물을 내세우는 청소년소설이 “자아와 세계가 통일되었던 유년기를 벗어나 자아와 세계가 분리되면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성장하는 때”(한미화, 앞의 논문, 27면)로 설명되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고려하여 창작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사하는 법』, 『푸른 늑대의 파수꾼』, 『아몬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감당하지 못한 엄마로서 제 역할을 행하지 않음으로 부재한다. 그리고 엄마의 자리가 비어 있는 그 때에 청소년인물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성장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결국 서사의 후면으로 밀려난 엄마의 부재가 청소년인물이 처한 상황적 배경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인물의 성장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푸른 늑대의 파수꾼』<sup>38)</sup>에 등장하는 엄마는 생전 자신을 왕비처럼 떠받들어주던 남편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과 아들 햇귀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피폐한 상태로 그려진다. 삶에 대한 의지를 버리고, 오로지 생활과 경제 활동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 자식의 존재를 생의 후면으로 밀어낸 채 그저 살아 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들의 불행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는 것이다. 햇귀가 권력 관계에 놓인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과거에로의 타임 리프에 의해서이다. 『아몬드』<sup>39)</sup>에서 ‘엄마’는 감정표현불능증 진단을 받은 아들 윤재를 친정 엄마인 ‘할멈’의 도움으로 홀로 키우는 싱글맘으로 등장한다. 윤재 아빠가 죽고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 엄마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내 윤재가 사회에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교육하며 평온을 일상을 영위하던 때에 사고를 당한다. 그리고 윤재를 보살피던 엄마와 할멈이 윤재의 곁에서 사라진 이후에 윤재의 감정표현불능증은 회복된다.

그러나 청소년소설의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는 근래에 이르러서는 폭력과 무책임, 부재로 드러나는 엄마의 존재가 아니라 자식의 삶에 조언자로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과 깨달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엄마를 찾아볼 수 있다.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sup>40)</sup>는 또래 관계를 세심하게 다루는 소설이니 만큼 엄마의 존재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생계를 위해 동네에서 우동집을 운영하는 다현의 엄마는 바쁘게 지내면서도 딸의 고민에 진심으로 귀를 기

38) 김은진, 『푸른 늑대의 파수꾼』, 창비, 2016.

39) 손원평, 『아몬드』, 창비, 2017.

40) 황영미,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문학동네, 2019.

울이고 따뜻한 조언을 건넨다. 『유원』<sup>41)</sup>에서 청소년인물인 유원은 ‘이불 아기’라 불린다. 여섯 살 때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11살 많은 언니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유원의 엄마는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기 유원을 맨몸으로 받은 충격 때문에 불구가 된 ‘아저씨’에게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받는다. 그렇지만 기사식당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식을 살려준 은인에 대한 미안함과 먼저 떠난 딸에 대한 죄책감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으며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삶을 살아간다. 그런가하면 엄마의 죽음으로 아픔을 겪을 딸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위로와 공감을 발신하는 엄마도 있다.<sup>42)</sup>

이들을 통해 청소년소설에 재현되는 엄마의 모습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에 예속된 타자로서의 엄마이기보다는 현실의 삶에서 주체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존재로서의 엄마, 자식과 권력 관계를 형성하여 군림하려고 하는 억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식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엄마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들 소설에서 엄마는 부재함으로써 성장을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인물이 성장하기 위해 겪는 진통을 곁에서 지켜본다.

비혼과 저출산,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구별, 성(性)에 따른 가족 공동체 내부에서의 역할 구분은 무의미하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청소년소설이 고민할 지점은 “지극히 평범하고 어른들 말에 순응하는 아이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골고루 무난하게 사는 아이들한테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종이 한 장 차이로 고비를 여러 차례 넘어가는데, 그런 것을 잡아내도 되리라고 봐요.”<sup>43)</sup>라는 청소년소설 독자의 바람처럼 특별한 무언가를 문제로 포착하는 시선이기보다는 성장이라는 과정에 놓인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사회적 관계, 내면 자체의 소설적 형상화이어야 할 것이다.

41) 백은유, 『유원』, 창비, 2020.

42) 이꽃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2018.

43) 「청소년 문학 좌담」, 『창비어린이』 2004 봄, 237면.(김성진, 「청소년 소설의 현실 형상화 방식에 대한 연구」, 『우리말글』 45, 우리말글학회, 2009, 256면 재인용)

[ABSTRACT]

## The Meaning and Role of ‘Mom’ Represented in Juvenile Novel

Jeong, Mijin(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aspect of 'mom' being reproduced in juvenile novels and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role of mom. In juvenile novels, moms regard their children as their possessions and do not recognize their children's subjectivity, while strengthening the power relationship of domination-submission with their children(『Spring Buck』, 『Hiking Girls』), or directly abusing their children. (『Wizard Bakery』, 『Hulhull』). On the other, a subjective mom who is not subordinated to family ideology appears (『How to Say Goodbye to Fear』), There is also a case of reimag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Paint』). In these novels, moms are portrayed as carrying the duty of care, social expectations, and prejudice within a disorganized family. Until now, in adolescent novels, moms have been present in an absent way and have played a role in driving the growth of adolescent characters. However, in recent novels, the role change can be sensed through the mom who acknowledges the individuality of her child and forms a horizontal relationship, not the oppressive figure who tries to dominate by forming a power relationship with her child.

**Key words** : Juvenile Novel, Mom, Power Relations, Violence, Family Ideology, Growth

## [참고문헌]

### ■ 기본자료

- 구병모, 『위저드 베이커리』, 창비, 2009.  
김려령, 『우아한 거짓말』, 창비, 2009.  
김은진, 『푸른 늑대의 파수꾼』, 창비, 2016.  
김이윤,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창비, 2012.  
김혜정, 『하이킹 걸즈』, 비룡소, 2008.  
문경민, 『홀홀』, 문학동네, 2022.  
배유안, 『스프링 벅』, 창비, 2008.  
백은유, 『유원』, 창비, 2020.  
손원평, 『아몬드』, 창비, 2017.  
이꽃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2018.  
이희영, 『페인트』, 창비, 2019.  
황영미,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문학동네, 2019.

### ■ 단행본

- 권명아,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김희경, 『이상한 정상 가족』, 동아시아, 2017.  
박상률, 『청소년문학의 자리』, 나라말, 2011.  
선주원, 『청소년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이정, 2019.  
한지희, 『모성과 모성 경험에 관하여』, 소명출판, 2018.  
캐슬린 린치, 김순원 역, 『정동적 평등: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한울아카데미, 2016.

### ■ 논문 및 기타 자료

- 김성진, 「청소년 소설의 현실 형상화 방식에 대한 연구」, 『우리말글』 45, 우리말글학회, 2009, 247-265면.  
김은하, 「청소년 문학과 21세기 소녀의 귀환」,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293-326면.  
김혜영,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차별의 기제와 특징을 중심으로」, 『젠더와문화』 6권 1호, 여성학연구소, 2013, 7-41면.  
김혜정, 「청소년문학에 나타난 가족해체서사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0,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 177-193면.  
류보선, 「‘엄마(를 부탁해)’에 이르는 길」, 『돈암어문학』 30, 돈암어문학회, 2016,

7-41면.

- 박경희, 「한국 청소년소설 연구」, 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6.
- 박필현, 「국가주의적 젠더정치, 모성의 호명과 주체화의 욕망」, 『구보학보』 15, 구보학회, 2016, 265-289면.
- 서은경, 「현대문학과 가족 이데올로기 (1)- 아버지 부재의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9, 돈암어문학회, 2006, 83-110면.
- 소라미, 「한국에서의 입양제도의 현황과 과제」, 『가족법연구』 63, 한국가족법학회, 2018, 1-18면.
- 이경숙 외, 「피학대 아동의 가족에 대한 정신적 표상: 성, 연령 및 학대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08, 1-19면.
- 이영우, 장수연,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20,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 109-114면.
- 이해순·변상해, 「청소년이 지각하는 주관적 행복감이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권 5호, 인문사회 21, 2973-2978면.
- 정미진·이영석,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사회적 관계의 양상」, 『인문학연구』 37, 인문학연구소, 2018, 261-289면.
- 정지연·이미정, 「미혼모에서 좋은 엄마로 위치하기: 양육미혼모의 낙인 대응에 대한 연구」, 『젠더와문화』 13권 2호, 여성학연구소, 2020, 116면. 115-151면.
- 한순미, 「한국 현대문학에서의 ‘어머니’ 표상과 ‘희생’ 서사」, 『석당논총』 50, 석당학술원, 2011, 465-496면.
- 「한부모 가구 비율」, e-나라지표, 2022.9.8.